



외송리 전경

“산수유도 내 쫓아내 새들이 주인이지”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12 조계산 송광사

송광사에 갈 때마다 사람주나무를 본다. 미끈한 종아리를 가진 사람주나무를 오래 전에 두고 온 나를 보듯이 자세히 본다. 지난 겨울의 혹독함을 견뎌 나무는 어느새 새 이파리를 달고 있다. 얼마나 속이 뜨거웠을까, 잎 색이 붉다. 사람주나무 옆에는 서어나무 굴참나무들이 저마다 잎을 내밀고 있다. 세상에 있는 색깔 중에서 봄 나무의 일만한 것이 어디 있을까. 굴참나무 서어나무는 투박한 남정네의 손처럼 굵은 각질의 피부를 가졌고, 사람주나무는 열여섯 처녀의 종아리처럼 미끈한 피부를 가졌다.

절로 가는 길은 언제나 마음 짙는 길. 거듭 절하며 나보다 더 하찮게 여겼던 것들에게 미안해하며 가는 길. 뒤우치며 가는 길. 느끼게 걷는 발걸음이 무겁다.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보 사찰의 하나인 송광사. 몇 년 전 나는 송광사에서 부처님의 복장유물을 친견하는 영광을 맛보았다. 광주 저운사 아미타좌상의 복장유물을 조사하는 전문가들과 함께한 자리였는데 <묘법연화경> <주금강경>

외송리 일대 대부분이 절 땅 마을 30여호 식당 민박집뿐 “절 혜택 많이 입고 살아요”

등과 함께 발견된 자료 중엔 ‘형집 한 쪼거리’ 까지 시주한 내역이 적힌 문서도 있었다.

송광사는 언제 와 보아도 단정한 모습이다. 매무새 하나 흐트러짐이 없는 화승의 모습이랄까. 우화각을 지나다. 우화각 아래 홍교에는 백년도 넘었을 열전 몇 닢이 매달려 있다. 옛날 절을 지을 때 남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후세 사람들을 위해 남겨 둔 것이라 한다. 형집 한쪽까지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그 마음 그대로다.

절 안의 건물들은 대부분이 보물이고 국보다. 사천왕상을 지나자 종무소가 나온다. 대웅전 마당은

정갈하다. 비사리구시에 눈 한 번 주고 마음은 풍경에 매달린다. 맑은 풍경 소리 끝에 조계산의 꽃들이 피어난다. 뉘아도 더께 가득한 가슴 속에 문득 울리는 풍경 소리가 물결을 낸다.

징검다리를 지나 절을 나온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흥에 겨워 있다. 바위를 악착같이 감싸고 있는 나무의 뿌리들. 뿌리들의 안간힘을 위무라도 하는 듯 물 소리는 낮고 차분하다.

일주문 근처에는 조계산에서 나왔을 나물이나 약재를 파는 할머니들이 있다. 장사가 잘 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늘어선 식당 앞에는 물건을 덮어 둔 포장 이 밧줄에 동여매져 있다.

“마수도 못했쇼. 당아.”

이 여자 할머니(80)는 등갈래, 헛개 열매, 고사리, 표고, 호박 말린 것 등을 팔고 있다.

“차로 저 우게다가 다 대팔고, 하례 마수도 못할 때가 제부렸어. 저 보지요. 저 우게 가면 노인들이 줄 줄이 양겼어. 나는 담배가 있어서 담배나 하나 풀라고 양겼제. 담배 두 보루 풀어서 한 갑 남는다디야?”

마수도 못했다는 말에 헛개 열매와 등갈래 등을 조금씩 산다.

“땀에(달여) 집수면 좋아요. 간에도 좋다향께, 드지요. 만원인데, 마주고 금개 오천 원만 주지요. 갖고 가서 약해 집수시오.”

할머니는 아들을 먼저 저승으로 보내고, 며느리와 손자와 할머니, 이렇게 세 식구가 산다. 손자 학용품 값이라도 벌려고 하는 일이지만, 그도 시원치 않다.

“일정 때가 태어나서 눈도 봉사제.”

물건을 좀 더 샅더니, 몇 움큼을 기어이 담으로 준다.

송광사 사하촌인 외송리(순천시 송광면)는 식당과 민박집뿐이다. 식당을 하고 있는 장대철(53)씨는 구산 스님과 얽힌 일화를 들려준다.

“계실 때가 뭐, 절약하셔요. 구시에 밭태기도 있으면 주위 묵고, 아깝다고 그만큼 검소하고, 든든하신 분이죠.”

구산 스님을 보면 항상 웃는 얼굴에 턱이 느껴졌다고 한다. 장씨는 더 오래된 이야기를 꺼낸다. 비구 승들이 몰려오기 전 송광사 스님들도 속가에서 지낸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장씨의 친구 중에는 스님네 자식이 꽤 있었다고 한다.

“세배를 꼭 갔죠. 스님네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요. 세배 가면 돈 줘요.”

외송리 일대의 땅은 대부분 송광사 소유이다. 마을은 30여호쯤 되었는데, 옛날 논 자리에 식당들이 새로 들어섰고, 원래 마을의 형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절 땅이 약 팔십 퍼센트 뵈니다. 우리가 절 혜택 많이 입고 삽니다. 옛날에는 다 농사지었어요.”

농사철이 시작되어선지 마을 안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집마다 민박집 간판을 내걸고 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김숙자(61·외송리씨)가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다.

“옛날 같이 손님이 안 많아요. 이, 뭐냐? 승년(홍년)이 안 들었을 때, 그때 많았죠.”

승년이 무슨 말이나고 되물었다니, “아인애프”라고 말한다. 하긴 아인애프만한 흥년이 어디 있을까.

“닭도 촌닭 쳐서 풀고, 이만 원씩에 막 풀고, 백숙까지 삶아주면 삼만 원은 받아서 돼. 근디 그 지서리도 못하겠습디. 갑자기 할라면 청소 해야제, 밧 하제.”

“아들 서이 딸 들을 다 여웠다”는 김씨에게 집 자랑을 해 보라 하였더니, 갑자기 차려 자세를 취하며, 말을 한다.

“여름내 오만 과일나무 있고, 두름이랑 감나무도 있고, 우리집 오면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

산 바로 아래 집이라서 전망이 좋다. 그런데 닭장에 가 보니 닭이 한 마리도 없다.

“풀 뜯어 묵으로 갖제. 그렇게, 촌닭.”

하면서 완히 웃었다. 여러 종류의 산새들이 풍경 소리보다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에게 새들은 그다지 이로운 존재가 아니다.

“산수유도 내 쫓아내, 산수유 못 따요. 여름이면 거 훑한 새가 다닐서 복성(복숭아)이고 머이고 다 따먹어요. 전일 것이 없어요. 다 따 먹어부러.”

결국 산수유나 감나무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야생 조류인 셈이다. 그래도 김씨는 “새소리가 얼마 나 좋냐”며 활짝 웃었다.



우화각 아래 홍교



우화각 아래쪽 징검다리.

야생화를 열육처럼 김해화사인

“꽃이 울면 나도...” 지독한 야생화 사랑

80년대를 대표하는 노동자 시인 김해화(사인). 공사판에서도 거칠기로 소문난 철근 일을 하고 있지만, 그의 감수성은 한없이 예민하다. 시를 쓰는 틈틈이 사진을 찍는다. 그의 야생화 사랑은 지독하다. 비가 오는 날이나 공천날이면 여덟이 그가 찾아오는 곳. 조계산과 모후산 일대이다.

“꽃들이 밭을 해. 환경이 달라. 꽃들의 울음을 들으면 나도 물레 눈물이 나지.”

그에게 야생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넋이다.

“우리 마을에서 처녀 하나가 죽었는데, 세상에 거기가 나무를 박아서 죽었다는 거야.”

그 처녀의 울음소리로 들었다고 한다. 어느새 시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린다. 그에게는 열여섯에 고향 떠난 분이, 여순사건 때 총 맞아 죽은 아내, 늙은 철근쟁이 이씨 등, 현대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민중들의 모습이 열레지꽃, 광대나팔꽃, 히어리꽃으로 살아 말을 건다.

시인의 야생화 사랑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몇 년 전에는 야생화 사진과 글을 모아 <김해화의 꽃쟁이>라는 책을 묶기도 하였다.

“한번은 모후산에 갔는데, 타래난초가 있는 거야. 눈에 잘 띄는 곳에 기가 막히게 피어 있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고는 꺾어 버렸지.”

그의 입에서 꽃을 꺾었다는 말이 나오자 당혹스러웠다. “사람들이 그거 있는 거 알면 개가 버러거든. 그런데 꽃은 꺾어 버려도 뿌리가 있어서 다 살아.”

방법은 같아도 사람의 길이는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직경 10mm
·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날개) 1만원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뻣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 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금강 오색 오방氣 염주 (차량걸이)

5색기는 동, 서, 남, 북, 중앙의 5방을 표시하기도 하고 청, 황, 적, 백, 흑의 5색인종이 하나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래 이 기는 1882년 영국군인 울콧대위가 창안한 것인데 1950년 W.F.B(세계불교도 우의회)에서 만국공통의 불교기호 채택하면서 청색은 귀, 황색은 지혜, 적색은 자비, 백색은 청정, 등색은 정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하고 결의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금강 오색 오방氣 차량용 염주는 불자님의 무사고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점안 기도하여 출시되었다.

가격 : 8,000원 (날개 주문시 택배비 별도)
(차걸이로 사용하세요!!)

출시기념 : 3개 이상 구매시 1개 더 드립니다.
특히, 상표등록, 디자인등록출원됨

희담석 지압 신발 패드

희담석지압 신발 패드는 희담석의 뛰어난 에너지가 걸으실때 언제 어디서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특히 외근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걸어야하는 직장인들, 선방스님, 발이 아파 많이 못 걷는 분, 자주 등반하시는 불자님, 군인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4,000원 → 20,000원 (출시기념 할인판매)

- 사용법 및 주의사항**
1. 신발크기에 맞게 가위로 잘라 사용하십시오.
 2. 세탁은 부드러운 솔로 닦은다음 건조시켜서 사용 하십시오.
 3. 절대로 수세미로 글거나 문지르지 마십시오.
 4. 신발안의 땀, 자갈등의 이물질로 인해 패드에 손상이 있을 시 제품의 교환이 불가능 하오니 주의하십시오.

신제품

희담석이 들어있습니다.